도서관·문학관서 작가의 꿈 이루세요

일곡도서관 등 광주·전남 9곳서 '내 생애 첫 작가수업'

은미희·고재종 등 참여…수강생 작품 모아 작품집 발간

"올 여름 나도 도서관과 문학관에서 작가의 꿈을 이룬다."

도서관과 문학관에서 현업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수업'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내 생애 첫 작가수업'을 이달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해온 '도서관·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참여 작가와 수강생 모두를 지원한다. 수강생은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참여작가들에게는 창작집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광주에서는 일곡도서관(062-410-6894)을 비롯, 남구 문화정보도서관(062-607-2521),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062-380-8875) 등 3곳이 선정되었고 전남에서는 강진시문학파기념관(061-430-3186), 광양공공도서관(061-793-8780), 담양공공도서관(061-383-7435), 목포문학관(061-270-4052), 진도공공도서관(061-5442936), 장흥천관문학관(061-860-0457) 등 모두 6곳에서 작가수업이 진행된다.

일곡도서관에서는 은미희 작가를 초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소설 창작반(매주 목·금요일, 10시~오후 1시)을 개설한다. 용봉 작은 도서관에서 일반인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문장 쓰기, 소재 찾기, 구성하기, 영화 감상문 쓰기 등 글쓰기 전반에 강한 강의가 펼쳐진다. 글쓰기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장르에 맞는 글쓰기 양식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둔다.

광주 남구문화정보도서관은 수필가 박영덕 씨를 초청,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필 쓰기 강좌(수·목·금, 오후 2시~4시)를 마련한다. '나도 수필작가가 될 수 있을까', '작가가 되기 위한 독서 방법', '수필 낭송법' 등 실기 위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에서는 시가 아닌 소설 강좌(매주 금·토, 오후 1시30~5시)로 지역민을 만난다. 장편 소설 '갯들'의 작가 이현숙 씨가 강사로 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설 창작과 이론 강의를 한다. 실기 위주의 강의에 초점을 둬, 종강에 맞춰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은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장흥 천관문학관에서는 방학을 맞아 아동문학 강의가 진행된다. 아동문학가 김해등 씨가 강사로 나서 동시 쓰는 법, 동화를 쓰는 기법, 동화작가가 되는 글쓰기 등 다양한 강의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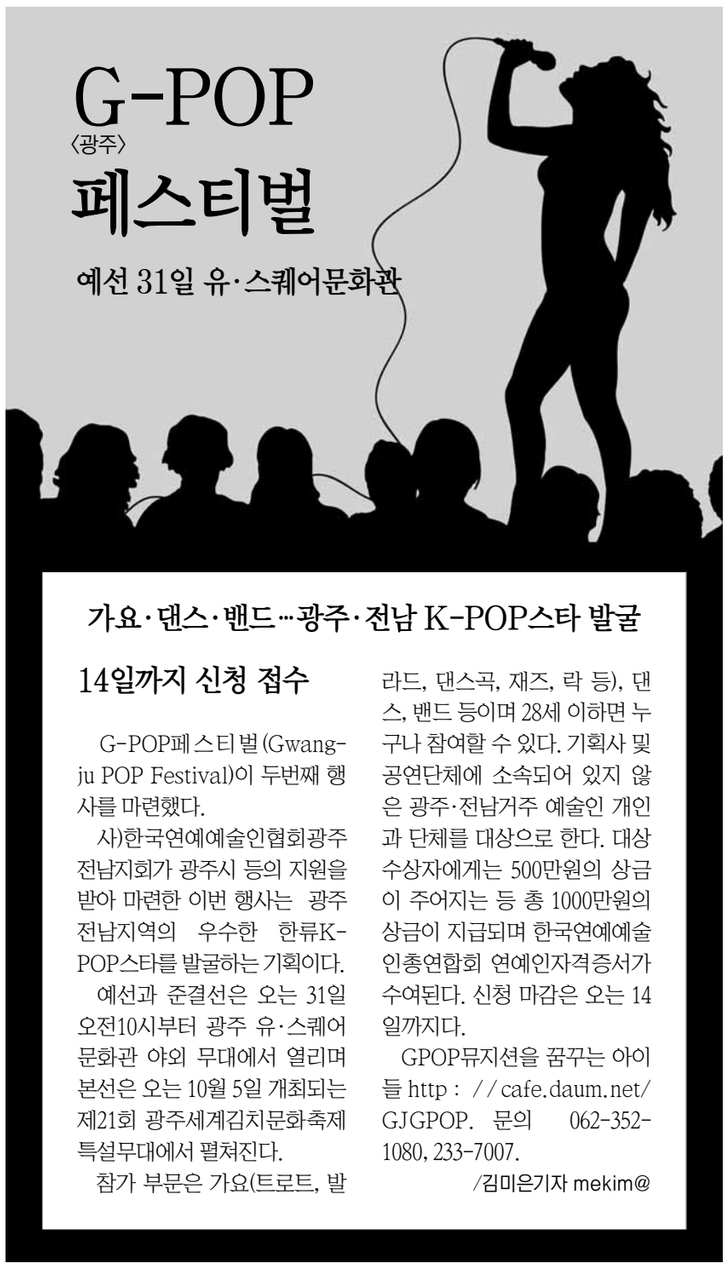
김선기 시문학파기념관장은 "작가수업을 통해 독자들은 좋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소양을 기를 수 있고 작가는 창작 의욕고취와 작품집 발간하는데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행사 의미를 부여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도서관, 내 생애 첫 작가 수업' 광주·전남 참여 기관

기관명	작가명	장르	연락처	홈페이지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	박영덕	수필	062-607-2521	http://lib.namgu.gwangju.kr
광주북구일곡도서관	은미희	소설	062-410-6894	www.ilgoklib.bukgu.gwangju.kr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김봉학	시, 수필	062-380-8875	http://lib.gen.go.kr/gecs
강진군시문학파기념관	이현숙	소설	061-430-3186	www.simunhak.or.kr
광양공공도서관	안정희	시, 시조	061-793-8780	http://gylib.or.kr
담양공공도서관	고재종	시, 시조	061-383-7435	http://dylib.or.kr
목포문학관	이철송	시, 시조	061-270-4052	http://munhak.mokpo.go.kr
진도공공도서관	김규일	아동문학	061-544-2936	www.jindolib.or.kr
장흥천관문학관	김해등	아동문학	061-860-0457	없음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을 비롯 광주·전남 9곳의 문학관과 도서관에서 연말까지 '내 생애 첫 작가수업' 강좌가 열린다. 사진은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전경. 〈강진군 제공〉



가요·댄스·밴드…광주·전남 K-POP스타 발굴

14일까지 신청 접수

G-POP페스티벌(Gwangju POP Festival)이 두번째 행사를 마련했다.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광주전남지회가 광주시 등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지역의 우수한 한류K-POP스타를 발굴하는 기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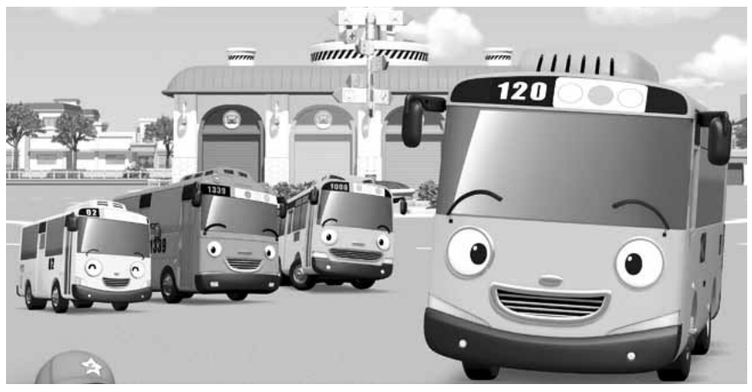
예선과 준결선은 오는 31일 오전10시부터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야외 무대에서 열리며 본선은 오는 10월 5일 개최되는 제21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참가 부문은 가요(트로트, 발라드, 댄스곡, 재즈, 락 등), 댄스, 밴드 등이며 28세 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획사 및 공연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광주·전남거주 예술인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연예인자격증서가 수여된다. 신청 마감은 오는 14일까지다.

GPOP뮤지션을 꿈꾸는 아이들 http://cafe.daum.net/GJGPOP. 문의 062-352-1080, 233-7007.

/김미은기자 mekim@

뮤지컬 '꼬마버스 타요-슈퍼버스의 탄생' 광주 공연



16~17일 광주문예회관

실제 버스에서 이야기 펼쳐

'꼬마버스 타요'는 서울시와 EBS가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

EBS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유아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각 지자체와 백화점 등에서는 실제 타요버스 타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가 뮤지컬로 만들어졌다. '뽀로로와 요술램프', '구름빵', '마법사와 쫓겨난 임금' 등 어린이 공연 작품의 마이더스 손으로 불리는 허승민씨가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다.

'꼬마버스 타요-슈퍼버스의 탄생'이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16~17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꼬마버스 타요'는 타요를 자신이 상상하는 최고의 슈퍼스타로 여기는 꼬마 아이와 자신이 겁쟁이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은 타요가 버스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겪는 경험을 통해 진짜 영웅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버스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며 주인공 꼬마와 타요의 꿈을 플라잉 기법으로 묘사했다.

티켓 가격 4만5000원, 4만원, 3만5000원. 문의 1688-38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1회 심훈문학대상에 '정글만리' 조정래

소설가 조정래

소설가 조정래 씨가 제1회 심훈문학대상(상금 2000만원)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 주체인 상록문화제집행위원회(위원장 한기흥)와 계간 아시아 측은 11일 조 작가가 지난해 펴낸 대하소설 '정글만리'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관심과 통찰력을 보여줬다며 이 같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심훈문학대상은 세계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아시아 작가들을 수상 대상으로 한다. 등단 10년 이상으로 최근 3년내 주요한 창작 실적도 있어야 한다. 수상작의 해외번역과 보급 등 혜택도 주어진다.

/연합뉴스

고산문학대상 강형철·김영재

시인 강형철

시인 김영재

제14회 고산문학대상 시 부문에 강형철, 시조 부문에 김영재 시인이 선정됐다고 상을 주관하는 계간 '열린시학'이 11일 밝혔다.

수상 시집은 강형철의 '환생'(2013), 김영재의 '화답'(2014)이다. 상금은 각 1000만원으로, 시상식은 10월 18일 전남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고산문학대상은 고산(孤山) 윤선도(1587-1671)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2001년 해남군 지원으로 제정돼 학술과 시조 작품에 시상돼왔다.

/연합뉴스